

【학술비평】

## 20세기 만주연구의 현황과 과제

— 『20세기 만주역사 사전』 한일합동 서평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

정 안 기\*

### ┃ 차 례 ┃

1. 한일 합동 서평 국제회의 취지
2. 제1부 총론, 정치, 경제
3. 제2부 문화, 민족, 환경
4. 제3부 종합토론과 요지
5. 전망과 과제

### 1. 한일 합동 서평 국제회의 취지

만주학회는 지난 2014년 3월 14일(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과 일본학술진흥회와 공동으로 『20세기 만주역사사전(二〇世紀滿洲歷史事典)』 한일합동 서평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학술회의는 2012년 12월 일본의 요시카와히로분칸(吉川弘文館)이 출간한 『20세기 만주역사사전』<sup>1)</sup>(이하 사전)의 편저자와 한국의 만주 연구자가 합동으로 참가하는 형식의 서평회였다. 이 사전은 일본에서 만주학을 전공하는 105명의 집필자, 805항목, 840페이지에 달하는 1945년 이후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만주역사 사전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전은 일본에 활동하는 중량급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총결집한 역작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1) 貴志俊彦・松村史紀・松重充浩編, 2012, 『二〇世紀滿洲歷史事典』, 吉川弘文館.

으로 일본 학계의 만주에 관한 최신의 연구 시각과 성과를 총설,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민족부문에 걸쳐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2011년 이래 일본측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 京都大學)와 한국측의 정안기(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서평회는 일본측이 (1)최근의 연구 동향, (2)항목 선정의 방침, (3)금후의 과제를 보고하고, 한국측이 총평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문화, 민족, 환경의 순으로 각각 논평하는 형식이었다. 회의 발표자는 사전의 편저자를 포함한 9명과 한국측 논평자 8명의 구성이었다. 금번 학술회의는 20세기 만주 역사의 현대사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본 학계의 만주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만주학회는 이 사전이 최근 일본 학계의 만주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만주 연구자들에게도 커다란 학술적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3년 2월 일본측 참가자들로부터 발표 개요가 도착해서 한국측 참가자들이 각각 분담해서 한국어 번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본측 발표개요, 한국측 논평개요, 일본 학계의 서평 3부 구성, 154페이지 분량의 발표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발표집은 만주학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월 13일 오후 일본과 일본측 참가자들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속속 도착하였고, 저녁에는 동아대학교 한석정 부총장이 주관하는 환영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다음, 3월 14일 오전에는 서재길(국민대) 선생의 안내로 일본측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근대역사관(식민지기 동양척식 부산지점)과 용두산 공원을 견학하였고, 오후 1시부터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에서 『20세기 만주역사사전』 한일 합동 서평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은 동아대 박은경 교수의 사회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원장 신태갑의 개회사와 만주학회 부회장 임성모(연세대학교)의 축사가 있었다. 개회식과 학술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 동시통역사 2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어서 마쓰시게 미쓰히로(松重充浩, 日本大學)의 사회로 총론, 정치, 경제 부문의 제1부 발표와 논평을 시작하였다. 회의 진행은 먼저 일본측이 각 부문별 사전 편찬의 취지를

발표하고, 한국측이 각각의 발표에 대해 논평한 다음 일본측이 응답하는 형식이었다.

## 2. 제1부 총론, 정치, 경제

「총론」은 사전의 편저자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와 마쓰무라 후미노리(松村史紀, 宇都宮大學)가 담당하였다. 기시는 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만주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과 의의를 상대화하고자 ‘20세기 만주’라는 독창적인 개념에 기초한 사전 편찬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종래 일본중심주의 만주의 역사상을 수정하고, 다양한 민족이 교차하는 다양성과 중층적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만주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한 새로운 역사상의 구축과 실태 해명을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남겨진 연구 과제라는 것이다. 마쓰무라는 전후 만주 혹은 중국 동북지역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면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서 항목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전사(貫戰史)의 시각에서 만주국 붕괴 이후 ‘힘의 공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는가를 하는 점과 관련해서 만주국기로부터 중국 동북부로 이행 경로의 구체적인 실태를 묘사하고 그 전체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후의 연구는 정치경제사 이외 분야의 연구 축적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훈(육군사관학교)이 한국측의 총평을 담당하였다. 김기훈은 사전이 만주 연구의 성과를 집약해서 주변 각국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종래 만주연구를 시공간적으로 크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사전 편찬의 연구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그 동안 연구의 불모지였던 전후 중국 동북부를 추가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군사사

의 총설과 내용이 빈약하다는 점, 일반 사전과 동일한 구성의 항목별 배열이 아닌 분야별 배열이 보다 사전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닌가, 집필자의 대부분이 일본인 연구 필진으로 구성됨으로서 주제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연구 성과와 상당히 괴리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후 필진의 국적 다양성과 함께 웹사이트를 활용한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치」는 마쓰시게 미쓰히로(松重充浩)와 오자와 다케히코(大澤武彦, 日本國立公文書館)가 담당하였다. 만주국 붕괴까지를 담당한 마쓰시게는 최근 일본에서 만주 정치사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 주로 현지 사회의 다양성과 중층성 해명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특히, 청조(淸朝)기와의 연속성과 다민족 거주 공간에 주목한 연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래의 연구 성과 함께 현지 통치에 관련한 법 제도의 기반 그리고 ‘식민지 근대성’과 관련된 내용에도 유의해서 항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성’과의 관련 항목은 연구축적이 불충분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성 혹은 현지 지배층의 폭력성을 은폐·부정한다는 오해를 우려해서 극히 한정적인 기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를 담당한 오자와 다케히코는 1990년대 이후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만주가 전후 동북부 및 동북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해서 (1)전후 일본인의 기억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의 인양자(引揚者) 문제와 만주의 기술 방식, (2)국제관계에서 전후 만주라는 시각, (3)국공내전기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기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문제, (4)민족문제에 주목해서 중점적으로 항목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겨진 과제는 사전이 1945년부터 50년대 초반까지와 ‘개혁개방’ 이후의 항목이 집중되고는 항목과 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공백기에 상당하는 30여 년에 대한 연구 축적과 시기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긴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김태국(연변대)의 논평은 한국 및 중국 조선족과 관련해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와 다른 시기로 분류된 항목 등을 지적하였다.

「경제」는 우에다 다카코(上田貴子, 近畿大學)와 쓰카세 스스무(塚瀬進, 長野大學)가 담당하였다. 우에다는 종래 연구에서 만주국 성립 전후 시기는 단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심화 과정의 일 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사회적 변동을 동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속속 해명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는 일본사 연구자만이 아닌 중국사 연구자가 가세하면서 연구 축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전은 일본인만이 아닌 다양한 민족의 조직, 기업, 산업, 상관습, 기업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주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분명한 경제조직(예를 들어, 奉天兵工廠, 京泰線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쓰카세는 만주국기 경제사 연구가 활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후에 관한 연구 혹은 만주국기로부터 전후까지 포함해서 연속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연구 현황에 기초해서 전후 부문은 가능하다면, 만주국기 상황에 대한 언급과 함께 총설에서도 청조기로부터 전후까지 경제적 변동을 연속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항목을 선정하고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금후의 과제는 정치권력이 추진한 경제정책과 그것이 현지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측 논평자 정지호(경희대학교)는 초기 만주개척 과정에서 조선인이 담당할 역할의 경시, 항목간 서술의 일관성 결여, 수탈보다 개발에 치중한 기술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만주국기 경제 부문의 논평을 담당할 정안기(고려대학교)는 동북아시아라는 시점과는 달리 일본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기술이 산전된다든 점, 식민지 근대성과 관련된 항목은 정지호의 의견과 달리 과도하게 금융적으로 기술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사 연구에서 수탈과 개발의 문제는 결코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해외 연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합의점을 찾아 가는 노력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외 만주에서 활동한 조선인 자본(경성방직)에 대

한 기술이 부족한 점 혹은 조선과 만주경제와의 비교사·관계사 연구의 불충분성을 지적하였다.

### 3. 제2부 문화, 민족, 환경

제2부는 한규철 교수(경성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화」를 담당한 우메무라 스구루(梅村卓, 明治學院大學)는 만주국기 일본인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축적이 진행되었지만, 그 외의 시기와 민족에 관한 연구 관심은 크게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항목은 (1)일본인의 문화만이 아닌 한민족 혹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적극 선정하고자 했다는 점, (2)정치적 경향이 강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동북부에 대해서도 공산당 미디어기관 혹은 영화 등도 가능하면 문화항목으로 분류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금후 과제는 만주국기 한민족 혹은 만주국기 이외 시기에 관한 연구, 문화만이 아닌 역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문화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 김재용(원광대학교)은 만주에서 조선인 작가 활동에 관한 항목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예를 들어, ‘안수길’의 항목을 설정했다면, ‘강경애’의 항목을 비롯해서 ‘만주시인집’과 ‘재만조선인시인집’ 등 작품집도 언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작가의 문예활동에 대해서도 『文選』의 항목이 있지만, 『藝文志』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재길(국민대학교)은 전체적으로 사전이 문화생산의 주체와 발신자에 역점을 두었고,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과 변용 그리고 수신자의 입장을 경시해서 전체적으로 무미건조한 기술이 적지 않다는 점과 재만조선인 교육 혹은 운동주에 관한 항목을 결여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문화」를 담당한 야나기자와 아키라(柳澤明, 早稻田大學)에 따르면, 17세기 이후 만주는 대규모의 인구인동과 이를 동반한 민족집단의 재편이 반복된 지역이며, 최근에 이르러 구체적인 양상이 해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주국기 민족정책 전반을 검토한 연구가 제출되었지만, 중화민국기와 만주국기 개별 민족에 주목한 연구는 크게 불충분한 상황이며, 또한 전후 민족 재편성과 관련해서 동북부에 특화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사전은 몽골족과 조선족에 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충실하며, 만주국기에 대해서는 백계러시아인과 타타르인 등 소수민족에도 배려했다는 점을 특색으로 지적하였다. 금후 과제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만주지역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로서 漢민족을 상대화하는 시각에서 만주의 사회와 문화의 특질을 해명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윤휘탁(한경대학교)은 민족과 관련된 항목이 병렬적으로 기술되면서 유기적 기술을 부족하다는 점과 민족간의 관계, 갈등, 대립의 측면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민족 저항운동과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담당한 지방정부·경찰에 관한 항목이 극히 소략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환경」을 담당한 시바타 요이치(柴田陽一, 京都大學)는 사건의 환경 항목이 야스토미 아유무·후카미 요코(安富步·深尾葉子編)의 연구(2009)<sup>2)</sup>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같은 저작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만주지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단기간에 걸친 동아시아 최대의 환경 파괴를 동반했다는 새로운 만주의 역사상을 담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전은 같은 저작이 내재한 문제점도 포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만주 내부의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후의 연구는 만주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 시각에 입각해서 각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환경사 연구 축적이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임성모(연세대학교)는 환경 항목을 적극 포함시킨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경마장 등의 항목도 포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2) 安富 步·深尾葉子編, 2009, 『「滿洲」の成立—森林の消盡と近代空間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는 정안기(2011), 「사회생태사적 관점에서 본 근대 만주」 『만주연구』 제12집.

#### 4. 제3부 종합토론과 요지

종합토론은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와 김기훈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선행된 한국측의 지적에 대한 일본측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sup>3)</sup> 먼저, 기시 도시히코는 한국측 논평자로부터 사전에서 만주의 역사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총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만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 수에 따라서 지역의 이미지 혹은 역사상을 파악하는 방법도 다른 것이 현실이고, 서로 다른 나라의 연구자간에 서로 수용하기 곤란한 역사상의 등장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상호이해를 위해 국제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국측의 제안과 같이 일본측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인식에 기초해서 지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유하는 것은 상호의 역사인식을 존중하기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금번 사전 편찬은 주로 일본에서 세간의 만주사 인식과 다른 일본 학계의 만주에 대한 역사관을 통합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번 한국에서 개최한 서평회에서 이 사전이 장래 발전적인 국제 공동연구와 지적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경제」 부문에 관해서는 쓰카세 스스무(塚瀬進)가 답변에 나섰다. 한국측 논평자로부터 사건의 경제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단지 일본에 의한 만주개발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닌가 혹은 ‘식민지 근대성’과 관련하여 만주국기 경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쓰카세는 만주 자체의 경제적 요인과 만주 주변과의 관련으로부터 발생한 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한다는 입장에서 경제상황을 서술하고자 노력했다고 답변하였다. 더욱이, 한국측은 침략과 개

3) 종합토론과 관련하여 기시 도시히코(貴志俊彦)와 쓰카세 스스무(塚瀬進)는 학술회의 종료 이후 토론 요지를 작성해서 보내 주셨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 학술서평에 적극 반영하였다.

발의 논의 틀로부터 만주경제의 성격을 분석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이 사전은 지적인 이분법적 해석을 피하는 입장이며, 그 이유는 그러한 이분법적 해석이 만주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과도한 단순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침략’의 내용은 경제적 수탈만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폭력과 수탈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사 분석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이 그러한 방향성을 지향한다고 해서 결코 일본의 만주국 지배가 침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침략의 내실과 구조 해명에 있다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민족」 부문에 관해서는 마쓰시게 미쓰히로(松重充浩)가 답변하였다. 김기훈의 지적과 같이 군사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것은 만주 군사사에 관한 학계의 전공자가 부족해서 책임자를 물색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민족문제에 대한 질문과 반론이 많았던 민족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학계 역량이 부족해서 적극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인의 항일운동을 경시했다는 윤희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민족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였다.

## 5. 전망과 과제

사전은 현재 시점에서 20세기 만주연구와 관련된 일본 학계의 연구 역량의 결정체로서 현재 일본 학계가 도달한 만주 연구의 시각과 방대한 성과를 담아내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사전은 20세기 만주지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스마트한 길라잡이 혹은 중요한 학술자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전은 주변국의 만주 연구자들이 일본 학계의 만

주연구 동향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한국측의 총평을 담당한 김기훈의 지적과 같이 일본만이 아니라 관련 국가의 만주지역 연구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쾌거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3월 한일 합동 서평 국제회의는 사전의 주요 집필자를 초청해서 직접 그 편찬 의도와 성과 그리고 금후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래에 보기 드문 학술의 장이었다. 더욱이, 한중일 역사 갈등이 첨예화하는 시점에서 한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20세기 만주 혹은 동북아시아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교차하면서 그 성과를 논평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측 참가자들도 만주지역이 일국사 차원을 넘어서 주변국의 근현대사를 규정하는 현대성과 역사성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사는 보다 확장된 시공간에서 논의되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사전의 시각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특히, 같은 시각에 입각한 20세기 만주의 ‘다양성과 중층성’의 제시는 금후 만주 연구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이론 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주학회도 그 동안 10여년에 걸쳐 20세기 만주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성에 주목해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일의 역사 갈등이 첨예화하는 현실에서도 국내외에 걸친 만주연구의 심화와 다양성 확대를 고려하면, 만주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 점에서 최근 일본 학계가 축적한 만주연구의 성과와 시각을 충실하게 반영한 사전을 둘러싼 한일 학계의 합동 서평회는 한국에서 만주연구 진전을 위한 학술적인 자극임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 주제의 발굴과 탐색의 장이었다. 따라서 금번 한일 서평회는 금후 만주학회가 일국사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사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이자,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연구로 바쁜 신 와중에서 금번 서평회에 참가해서 논평을 담당해 주신 김기훈 선생님을 비롯한 만주학회 여러 선생님들과 금번 국제 학술회의 기획을 쾌히 승낙하시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기식 만주학회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韓日합동 서평 국제학술회의 기념사진

투고일 : 2014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5일